

다해·제2302호
대림 제3주일 · 자선 주일
2024년 12월 15일

춘천주보



제41회
자선 주일
포스터

목 차

- 02 말씀의 향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03 평신도 단상
이제는 용서할 수 있다.
-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³⁷
- 05 교구 소식
사제 수품자 소감문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스바 3,14-18ㄱ

화답송

-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필리 4,4-7

복음환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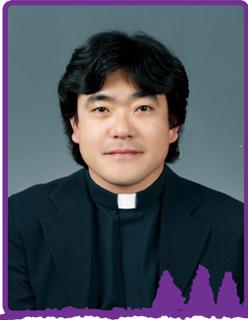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김수창 루도비코 신부
사회사목국장 겸 사회복지회장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해마다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선’(慈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길로써, 단순히 ‘물질적 베품’에 그치는 것이 아닌, ‘회개의 표시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하느님과 이웃을 향하여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증표가 바로 이웃을 향한 자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선은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오늘 복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려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고 외쳤습니다. 군중, 세리들, 군사들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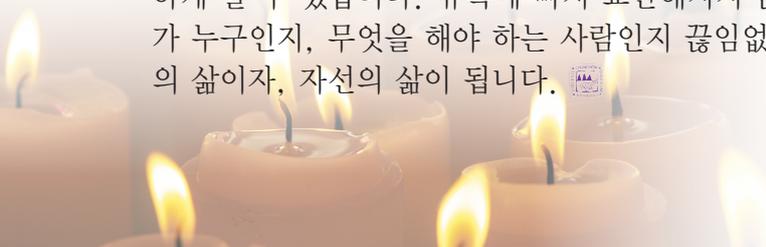
참된 회개는 언제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 물음은 회개의 진실성 여부를 보여줍니다. 내가 생활 태도를 바꾸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마음 자세는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변화된 행동은 결국 사랑과 자비, 용서와 이해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나눔의 삶을 살아라. ② 정직하게 살아라. ③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라.

세례자 요한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포기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약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미카 6,8 참조)

요한은 겸손하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임을 알리며,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온 선구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삶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군중들의 존경과 기대 속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매 순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겸손을 본받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자, 자선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아픔에 응답하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다.

사람은 인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도 하지만 때때로 상처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힘든 갈등의 상황,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를 피해 간다거나 모든 것을 쉽게 용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나” 고 묻자 예수님께서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2 참조) 고 대답하신 부분을 인용하면서 저의 소신을 밝혀 봅니다.

형제와 다름없는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동생이 갑자기 부도를 내고 야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봉급 압류가 시작되었고, 부동산은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삼십 년 이상을 아끼고 간간이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예금과 각종 보험을 해약하여 몇 곳의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 중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의 교육보험까지도 해약했었던 일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동안 집안 사정은 말할 것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조차 하기 싫습니다.

나의 삶을 통째로 앗아간 동생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모든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했고 도와주었던 일이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는 동생을 예전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손해를 보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손해는 용서를 못하고 그 일에 얽매어 고민과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게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는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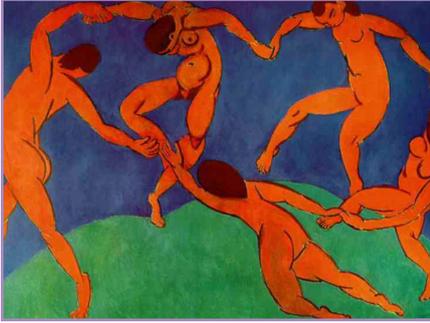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2025년 희년을 맞아 빚을 탕감해 주고 다가오는 희년을 예수님과 함께 참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용서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 치도 못 할 것 같지만 부듯한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란 우리가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비닐 및 플라스틱 사용 절제하기

양리 마티스 <춤>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³⁷

교회의 상징과 신비 (1) - 그리스도의 몸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성당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이름을 부르는 서양과 달리 나이와 관계에 따라 호칭이 참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실제 형제자매끼리는 사용하지 않는 이 말을 적절하게 잘 가져왔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적어도 매주 한 번씩은, 열심한 신자들이라면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이기에 실제 형제자매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러한 호칭은 한 분 하느님을 믿는 같은 신앙인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의 한 가족이며, 한 형제자매임을 드러냅니다.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분명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는 동시에 **이 세상을 넘어서는 신비로우며 영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시작으로 하여 교회를 이 땅 위에 실제적인 공동체로 세우셨고, 교회는 사도들의 뒤를 이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며 영적인 공동체로,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교회**이며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이며,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닌 공동체**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71항).

교회는 그저 단순히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조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신비이기에 이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 주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마치 각 신체 부위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89항). 우리 신체의 각 부위들이 서로 생김새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듯,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함을 간직하며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91항).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치 안에서 우리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결합도 함께 간직하게 됩니다.

머리와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치는 종종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신랑이며,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교에서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이며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혼인의 특성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한 몸을 이룬 관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부를 사랑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에페 5.26)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 영원한 계약을 통해 결합하시고 자신의 몸처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96항). 이러한 결합 때문에 교회 또한 신비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어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써 하느님을 온전히 계시하시어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결합된 교회는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신비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깊은 일치를 드러내 보여줌과 동시에 지상에서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75항).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분량은 교리서 322~344쪽, 753~810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제 수품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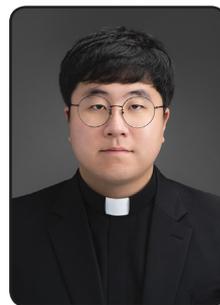
이상현 대건안드레아 신부

찬미예수님! 저는 2024년 12월 10일, 사제로 서품된 이상현 대건안드레아입니다. 우선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동행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춘천교구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첫영성체 교리교육을 받으면서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멋있다는 이유 하나가 저의 성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영성체 이후 다른 친구들처럼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하면서 신부님을 더 가까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신부님들이 어느 순간에나 긍정적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욱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걸어온 성소의 길을 되돌아보면 항상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부족한 저이지만 첫발을 내딛는 이 순간 저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하느님께 바칩니다.

사제로서 첫 발걸음을 떼며 기쁨과 설렘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저의 첫 성소의 시작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 교중미사가 끝나고 나서 여느 때와 같이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사의 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후다닥 기도를 바치고 간식을 받으러 갔을 텐데, 그날은 웬지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본당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하느님, 저는 하느님께서 제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사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있어 보이는 말을 하며 하느님께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참 설레고 떨리고 기뻐했습니다. 가슴이 막 뛰면서 벽차올랐습니다.

이런 기억을 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저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서 제 주위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교우분들을 통해 수많은 기쁨과 은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 처음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날의 기도가 저의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로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지금, 저는 그날과 같은 기도를 바칩니다. 아직 사제라고 하기엔 인품도, 지식도, 능력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하느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박관욱 안토니오 신부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사제평의회 · 참사회
12. 17.(화)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남북한삶위원회 4분기 정례회의
12. 18.(수) 16시, 사회사복센터 대회의실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간 행사표는 큐알코드로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성식 토마스 신부 36주기



생년월일 : 1941. 11. 16.
사제품 : 1968. 05. 11.
선 종 : 1988. 12. 25.

떼제기도(Taizé)

매주 (화) 20:30, 교구청 3층 경당
누구나 참여 가능 / 찬양, 말씀, 침묵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12. 24./12. 31. 은 없음)
☎ 010-5540-5551

춘천 교정봉사회 봉사자 모집

남사: 매 (목) 15시
여사: 마지막 (화) 15시
☎ 033-264-5011 한삶의집

성령쇄신 금요기도회

12. 20.(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강의 및 미사: 20:30 민상영 요셉 신부(가평 본당)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춘천 성심병원 원목실

위치: 본관 10층
입원 시 원목실로 연락 주세요.
☎ 033-240-5200, 010-4164-4610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예수외끼리파스수녀회서울관구	12. 22.(주일)	서울관구 본원(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www.icaritas.or.kr/home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2. 21.(토) 14시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월 1회, 살레시오회 관구(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3층)		0507-1306-1505	세상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40세 미만 미혼여성)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7197-1390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
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느헤미야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010-
4075-2166 이보람·가브리엘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글라라·김길영·마르티노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미사
12. 17.(화) 11시, 한삶강당

말씀 봉사자 모임
12. 21.(토) 10~17시, 가톨릭회관

꾸르실로 월례회의 및 정기총회
12. 21.(토) 10시, 말당회관

12월 카나 혼인 강좌
12. 21.(토) 18:30,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부활 성당 운영 안내
2025년 1월부터 매주 (월) 휴관합니다.

재속프란치스코 춘천형제회 월례회
매 셋째주 (토) 13시, 말당회관 3층
☎ 010-8392-8972

청년 찬양 성시간 PEACE
12. 20.(금) 20시, 한삶강당(19:30 현장접수 시작)

본 당 알 림

12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12. 16.(월) 13~16시, 임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
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거진 본당 설립 50주년(1976. 8. 15.)준비
본당 설립 50주년(2026. 8. 15.)을 준비하
며 오래된 사진, 책자 등 거진 본당과 관련된
내용의 물품들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
을 바랍니다.(1960~2002년까지의 정보)
☎ 033-682-5484

제41회 자선 주일 담화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
람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3,11)



2024년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5. 1. 15.부터 조회 가능)
 - 1) 신청기한: 2024. 12. 31.(화)까지 (기한 이후 신청 및 변경 처리 절대 불가)
 - 2) 간소화 서비스 포함 대상: 2024.1.1.~2024.12.31.까지 납부한 기부금
 - 3)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제출: 2022년 11월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자 본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022년 11월 이전 동의서 제출자와 타교구 전입자, 새 영세자 등 동의서 제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신자는 본당 사무실에서 서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납입한 당사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타인 명의(직계 존비속 등)로 변경(납부 정정)하여 발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인준시설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집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노체리안드리자 애병원 /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46
☎ 031-589-0301 F. 031-589-0344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분야: 생활재활교사 3명(남2, 여1)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주민번호, 사진, 추천인, 종교 기재금지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 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서류: 12. 19.(목) 18시까지
면접: 12. 23.(월)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춘천교구 무료급식소 '한살밥집' 운영안내

장소: 죽림동 주교좌 성당 식당
운영: 매주 월, 수, 토 11~13시 30분

후원계좌

신협 131-021-628060 (사회복지회한살밥집)
국민 301201-04-415579 (사회복지법인춘천교구사회복지회)

[ARS후원] 전화 한통 1만원 후원
060-700-5020 (오병이어)

봉사자 모집

월, 수, 토 봉사 가능
※ 미리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 조정하여 봉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 033-243-4545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일반알림

노비파스 음악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2025학년도 노비파스음악중고 입학생 모집(학력인정 대학)/대상: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전입생
전액 무상교육(수업료·기숙사비 전액 면제)
음악 전공 중점 교육 과정 운영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novitas-s.goegp.kr)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안내

2025년 동반자 100만원 할인 이벤트
3. 17.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0일 (550만원)
3. 17.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35만원)
4. 22. 이탈리아(히년 전대사) 11일 (465만원)
5. 19.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13일 (1075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2024년 춘천교구 대림 특강

1강: 윤장호 시몬 신부
2강: 이지목 안셀모 신부
춘천교구 유튜브 채널 ▲



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가톨릭춘천시협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지원금액 :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실 또는 신협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춘천시협 본점 033-255-6742
지점 033-262-6742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02-778-8565

- 2. 24.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원)
- 3. 9. 포르투갈 일주 9일 (동반자 100만원 할인)
- 3. 14. 시칠리아 몰타 10일 (동반자 100만원 할인)
- 4. 22. 이태리 일주(대희년) 11일 (동반자 100만원 할인)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쉽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연중피정 접수중)
한라산눈꽃산행: 1. 11.~13./1. 16.~18./1. 20.~22.
1. 24.~26./2. 1.~3./2. 7.~9./2. 15.~17./2. 21.~23.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 1. 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 2. 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 2. 1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 5. 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60만원
-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청주초정성령회관 2박3일 송년대피정

12. 27.(금) 20시~29.(주일) 14시, 초정성령회관
강사: 박효철 신부, 양창우 신부, 김완식 요셉
셔틀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앞 18:20 출발
청주가경고속버스 다이소 건너편 18:40 출발
☎ 043-213-9103, 010-5482-6744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 2. 8.~2. 19. 성모발현지(아시아나) 545만원
 - 3. 9.~3. 20. 파티마,스페인,루르드 460만원
 - 3. 11.~3. 2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 4. 1.~4. 12. 산티아고 도보순례 499만원
 - 4. 5.~4. 16. 희년 이탈리아 435만원
- ☎ 02-2281-9070 www.cttour.org 문의

cpbc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506-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홍승후 켈마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코다리조림)
대구목살, 생선 모든
코다리, 가오리 조림(전문)
위치: 영금정로 20(동명동1-83)
☎ 637-5070, 010-3756-9380
조철성 베드로·이봉자 벨라데타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이은경 테오도라

춘천즐거운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모집(장기요양등급신청 무료대행)/직장에 계신 시간 동안 안전하게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
☎ 010-3375-4977 김수정 레나

구름다리 주유소

후평동 금호 빌리지 옆
춘천 전지역 신속배달(인접지역도 가능) / 난방등유, 경유, 면세유
☎ 010-8945-1462
엄재철 미카엘·지은희 마리아골베

봄내베이킹

플라워 케이크 주문 제작
강습, 민간 자격증
시청길 10번길 9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전정구 베드로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별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